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26호 [루게 제24539호] 주체103(2014)년 5월 6일 (화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군인건설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을 당의 주체적건축사상과 사회주의문명국건설 구상이 철저히 구현된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일떠세우는데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조선인민군 제966군부대, 제462군부대, 제101군부대, 제489군부대의 군인건설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황병서동지, 장정남동지, 김정판동지가 여기에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으로 하여 군인건설자들의 가슴은 세차게 설레이고있었다.



급에게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 주는데 이바지한 군인건설자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을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기수인 인민군대의 애국적헌신성과 일본새가 낳은 자랑찬 창조물이라고 하시면서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말자는 구호를 심장깊이 새겨안고 당의 구상과 의도를 한치의 드림도 없이 최상의 수준에서 결사관철한 군인건설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참가자들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촬영장에 나오시는 열광의 환호에 손저어 답례하며 불가능을 모르는 혁명적군

인정신을 발휘하여 당에서 제정 한 기일안에 로동자합숙건설을 완공함으로써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관철하고 공장로동계

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2 번 으 로 계 속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군인건설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1 번 에서 계속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군대의 영웅적 투쟁에 의하여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이 련이어 창조되고있다고 하시면서 군인건설자들이 앞으로도 강성국가건설의 보람찬 투쟁에서 결사대, 척후대의 영예를 떨치며 조국의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또 다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와 《김정은 결사옹위!》구호의 함성이 터져올라 천지를 진감하였다.

전체 군인건설자들은 몸소 건설주, 시공주가 되시여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을 세상에 둘도 없는 로동자들의 궁전으로 일떠세우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고도 모든 영예를 자기들에게 안겨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대해같은 사랑에 솟구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부장조국건설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갈 불타는 맹세를 다짐하였다.

본사정치정보단



조선속도창조투쟁으로 새로운 기적을 창조해간다

위성과학자거리건설장에서 4월 살림집골조공사계획 108%로 수행, 현재 전체 세대수의 75% 이상 되는 살림집골조 완공

당의 구상을 받들고 우리 과학자들을 위한 현대적인 거리로 일떠서는 위성과학자거리건설장에서 살림집골조공사완공의 개가 높고 울려퍼지고있다.

뜻깊은 건군절을 앞두고 9호동, 10호동살림집 골조공사완공의 첫 승전고과 올린데 이어 4월말까지 1호동과 17호동, 18호동살림집골조공사도 끝났다. 3호동, 5호동, 12호동 살림집들도 7층 만장 및 지붕판간벽공사가 들어갔다.

현장지휘부에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공사장적으로 4월 살림집골조공사계획을 108%로 넘쳐 수행하였으며 5일현재 전체 세대수의 75% 이상에 달하는 살림집골조가 일떠섬으로써 이달중 골조공사를 계속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의 명령지시라면 산악 같이 밀쳐일어나 불붙을 가리키지 않고 기어올라 해내고야마는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투쟁기풍이다.》

현장지휘부아래 모든 시공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백두산위인들께서 제일로 아끼고 사랑하신 우리 혁명의 귀중한 보배들이며 앞으로 선군혁명의 길에서 나와 생사 운명을 같이 할 최고사령관의 전우들이 혁명혁명학생들을 위하하여서는 아까울것이 없습니다.》

단위들이 맹렬한 사회주의경쟁의 불길속에서 골조공사완공의 앞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전진속도를 높이고있다.

조선인민내무군 김경윤소속 부대의 장병들이 새로운 시대속도창조투쟁의 앞장서 내달리고있다. 부대의 책임일꾼들은 당의 사상정책을, 당정책을위해선 선진투쟁의 맨 앞장에 설 총령의 각오를 안고 위성과학자거리건설에 부단적인 힘을 집중하면서 건설자세를 비롯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나가고있다.

김경남소속부대, 김주섭소속부대, 최중국소속부대를 비롯한 전체 군인건설자들은 대형회틀 시공방법 등 앞선 작업방법들을 대담하게 받아들여 하루 최고 1000m²의 콘크리트를 일일 진행하였다. 그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려 두개 호동의 7층 살림집골조공사를 첫 기공하여 4월말까지 100%로 완공할수 있는 전망을 밝게 하고있다.

다만 시공단위들보다 작업조건이 불리한 철도구간에서 3개 호동의 살림집공사를 진행하는 조건에 맞게 강명호소속부대 지휘관들은 주라격대상을 바로 정하고 기초굴착 및 콘크리트치기에 선진적방법을 썼다. 부대에서는 철근가공, 휘틀제작과

전에 불을 걸고있다. 17호동, 18호동살림집건설을 맡은 조선인민내무군 진평철소속부대의 군인건설자들도 사회주의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은 휘틀과 철근조립을 기술규정의 요구도 좌우고 혼란물이 도착하는 즉시 다짐작업에 달려들어 높은 공사속도를 보장하였다. 그리하여 다른 시공단위들보다 앞선한 투지에 넘쳐 지금 7층 골조공사가 마지막차를 가하고있다.

조선인민군 김명철소속부대의 군인건설자들도 천년책임, 만년보존의 구호를 높이 들고 대형정밀회틀시공방법을 공법의 요구대로 정확히 받아들여 4월말까지 7층 상판콘크리트치를 끝냈다. 앙양된 그 기세를 이따금 군인건설자들은 7층 장식보공사에 진입하여 편일 높은 실적을 올리고있다.

대의건설지도국, 조선인민군 김명철소속부대, 수도건설위원회 등 다른 시공단위에서도 크나큰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 주고있다.

그림들을 보내주어 학원의 교육사업에 이바지하였다. 위교단사업총국 아래단위 파장인 김광옥동무는 만경대혁명학원을 도와줄때 대한 문제를 파의 성원들과 토의하고 지난해 12월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을 사상교육의 거점답게 꾸리는 사업을 성심성의로 도와주었으며 지난해 10여차례 걸쳐 물자들을 보내주었다. 국가과학원 소장 류성은동무는 지난해 만경대혁명학원 교육의 정보화를 실현하는데 계기되는 문제들을 풀어주고 컴퓨터를 비롯한 현대적인 설비들을 보내주도록 하였다. 매리움항사 사장 김일봉동무와 종업원들, 운곡항 김중동동무도 만경대혁명학원 원아들의 생활을 성심성의로 도와주고있다. 이밖에도 평양시 동대원구역 대진동에 살고 있는 성원화학교와 그의 딸이 원아들을 위해 지성을 다하고 있다.

조선인민군 김명철소속부대의 군인건설자들도 천년책임, 만년보존의 구호를 높이 들고 대형정밀회틀시공방법을 공법의 요구대로 정확히 받아들여 4월말까지 7층 상판콘크리트치를 끝냈다. 앙양된 그 기세를 이따금 군인건설자들은 7층 장식보공사에 진입하여 편일 높은 실적을 올리고있다.

대의건설지도국, 조선인민군 김명철소속부대, 수도건설위원회 등 다른 시공단위에서도 크나큰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 주고있다.

그림들을 보내주어 학원의 교육사업에 이바지하였다. 위교단사업총국 아래단위 파장인 김광옥동무는 만경대혁명학원을 도와줄때 대한 문제를 파의 성원들과 토의하고 지난해 12월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을 사상교육의 거점답게 꾸리는 사업을 성심성의로 도와주었으며 지난해 10여차례 걸쳐 물자들을 보내주었다. 국가과학원 소장 류성은동무는 지난해 만경대혁명학원 교육의 정보화를 실현하는데 계기되는 문제들을 풀어주고 컴퓨터를 비롯한 현대적인 설비들을 보내주도록 하였다. 매리움항사 사장 김일봉동무와 종업원들, 운곡항 김중동동무도 만경대혁명학원 원아들의 생활을 성심성의로 도와주고있다. 이밖에도 평양시 동대원구역 대진동에 살고 있는 성원화학교와 그의 딸이 원아들을 위해 지성을 다하고 있다.

그림들을 보내주어 학원의 교육사업에 이바지하였다. 위교단사업총국 아래단위 파장인 김광옥동무는 만경대혁명학원을 도와줄때 대한 문제를 파의 성원들과 토의하고 지난해 12월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을 사상교육의 거점답게 꾸리는 사업을 성심성의로 도와주었으며 지난해 10여차례 걸쳐 물자들을 보내주었다. 국가과학원 소장 류성은동무는 지난해 만경대혁명학원 교육의 정보화를 실현하는데 계기되는 문제들을 풀어주고 컴퓨터를 비롯한 현대적인 설비들을 보내주도록 하였다. 매리움항사 사장 김일봉동무와 종업원들, 운곡항 김중동동무도 만경대혁명학원 원아들의 생활을 성심성의로 도와주고있다. 이밖에도 평양시 동대원구역 대진동에 살고 있는 성원화학교와 그의 딸이 원아들을 위해 지성을 다하고 있다.

그림들을 보내주어 학원의 교육사업에 이바지하였다. 위교단사업총국 아래단위 파장인 김광옥동무는 만경대혁명학원을 도와줄때 대한 문제를 파의 성원들과 토의하고 지난해 12월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을 사상교육의 거점답게 꾸리는 사업을 성심성의로 도와주었으며 지난해 10여차례 걸쳐 물자들을 보내주었다. 국가과학원 소장 류성은동무는 지난해 만경대혁명학원 교육의 정보화를 실현하는데 계기되는 문제들을 풀어주고 컴퓨터를 비롯한 현대적인 설비들을 보내주도록 하였다. 매리움항사 사장 김일봉동무와 종업원들, 운곡항 김중동동무도 만경대혁명학원 원아들의 생활을 성심성의로 도와주고있다. 이밖에도 평양시 동대원구역 대진동에 살고 있는 성원화학교와 그의 딸이 원아들을 위해 지성을 다하고 있다.

조선인민군 김명철소속부대의 군인건설자들도 천년책임, 만년보존의 구호를 높이 들고 대형정밀회틀시공방법을 공법의 요구대로 정확히 받아들여 4월말까지 7층 상판콘크리트치를 끝냈다. 앙양된 그 기세를 이따금 군인건설자들은 7층 장식보공사에 진입하여 편일 높은 실적을 올리고있다.

대의건설지도국, 조선인민군 김명철소속부대, 수도건설위원회 등 다른 시공단위에서도 크나큰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 주고있다.

그림들을 보내주어 학원의 교육사업에 이바지하였다. 위교단사업총국 아래단위 파장인 김광옥동무는 만경대혁명학원을 도와줄때 대한 문제를 파의 성원들과 토의하고 지난해 12월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을 사상교육의 거점답게 꾸리는 사업을 성심성의로 도와주었으며 지난해 10여차례 걸쳐 물자들을 보내주었다. 국가과학원 소장 류성은동무는 지난해 만경대혁명학원 교육의 정보화를 실현하는데 계기되는 문제들을 풀어주고 컴퓨터를 비롯한 현대적인 설비들을 보내주도록 하였다. 매리움항사 사장 김일봉동무와 종업원들, 운곡항 김중동동무도 만경대혁명학원 원아들의 생활을 성심성의로 도와주고있다. 이밖에도 평양시 동대원구역 대진동에 살고 있는 성원화학교와 그의 딸이 원아들을 위해 지성을 다하고 있다.

그림들을 보내주어 학원의 교육사업에 이바지하였다. 위교단사업총국 아래단위 파장인 김광옥동무는 만경대혁명학원을 도와줄때 대한 문제를 파의 성원들과 토의하고 지난해 12월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을 사상교육의 거점답게 꾸리는 사업을 성심성의로 도와주었으며 지난해 10여차례 걸쳐 물자들을 보내주었다. 국가과학원 소장 류성은동무는 지난해 만경대혁명학원 교육의 정보화를 실현하는데 계기되는 문제들을 풀어주고 컴퓨터를 비롯한 현대적인 설비들을 보내주도록 하였다. 매리움항사 사장 김일봉동무와 종업원들, 운곡항 김중동동무도 만경대혁명학원 원아들의 생활을 성심성의로 도와주고있다. 이밖에도 평양시 동대원구역 대진동에 살고 있는 성원화학교와 그의 딸이 원아들을 위해 지성을 다하고 있다.

그림들을 보내주어 학원의 교육사업에 이바지하였다. 위교단사업총국 아래단위 파장인 김광옥동무는 만경대혁명학원을 도와줄때 대한 문제를 파의 성원들과 토의하고 지난해 12월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을 사상교육의 거점답게 꾸리는 사업을 성심성의로 도와주었으며 지난해 10여차례 걸쳐 물자들을 보내주었다. 국가과학원 소장 류성은동무는 지난해 만경대혁명학원 교육의 정보화를 실현하는데 계기되는 문제들을 풀어주고 컴퓨터를 비롯한 현대적인 설비들을 보내주도록 하였다. 매리움항사 사장 김일봉동무와 종업원들, 운곡항 김중동동무도 만경대혁명학원 원아들의 생활을 성심성의로 도와주고있다. 이밖에도 평양시 동대원구역 대진동에 살고 있는 성원화학교와 그의 딸이 원아들을 위해 지성을 다하고 있다.

수산부문에서 하루평균 천t이상의 다시마 수확

동서해에 펼쳐진 드넓은 바다가양식장들에 집단적경쟁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지역별, 생산단위별 경쟁열이 더욱 고조되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하루평균 천t이상의 다시마가 생산되고있다.

특히 부부, 웅진, 구미포바다가양식사업소의 일꾼들과 양식공들은 3월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로 4월계획수행에 박차를 가하여 근 1만 5천t의 다시마를 수확하고있다.

수도건설위원회 아래단위의 건설자들은 군인건설자들의 일당백공격속도에 자기들의 발걸음을 따라세우며 여러 호동의 살림집골조공사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위성과학자거리건설장에서 일떠섬, 시간마다 창조되고있는 기적과 위훈의 이 자랑스런 성과는 위대한 당의 평도법에 선군조선의 새로운 시대속도,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는 천만군민에게 크나큰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 주고있다.

본사기자 리병준

풍치를 한껏 들구고있다. 시해의 주요바다가양식사업소들사이의 맹렬한 집단적경쟁에서 구미포바다가양식사업소가 앞서나가고있다. 들끓는 양식장들을 차지한 이곳 당, 행정 일꾼들은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다는 화선식정치사업과 기동적인 생산지휘로 일리마다에서 보다 높은 생산실적이 기록되도록 하고있다. 양식공들은 다시마가 빨리 자라는데 맞게 직장별사회주의경쟁을 호소하고 전마선들의 정비보수를 짜고들어 최고 3회전의 다시마수확을 보장하고있다.

부포바다가양식사업소가 앞선 단위를 따라잡기 위해 더욱 기세를 올리고있다. 생산의 많은 몫을 맡은 이곳 일꾼들과 양식공들은 양보를 모르는 경쟁심을 안고 최중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비배관리를 그 어느때보다 짜고들면서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다시마수확을 공격적으로 벌리고있다. 양식공들의 양양된 열의에 맞게 사업소의 일꾼들은 화선식정치사업과 생산지휘를 전투현장에 접근시키고 끝메들과 하류설비들의 만가동보장에 힘을 넣어 성과를 확대하고있다.

웅진바다가양식사업소에서는 먼 수역에 양식장들이 위치한 조건에 맞게 합리적인 생산방법을 받아들여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있다. 양식공들은 불리한 생산조건들을 건인불반의 의지로 뚝고나가며 집중적인 다시마수확과 수송전투를 벌려 맡겨진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있다.

시해의 작은 규모의 양식장들의 열면 작업모습은 바다의

치열한 집단적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속에 많은 단위들이 가능한 조건들을 최대한 리용하여 생산실적을 높이고있다. 동해에서도 맹렬한 집단적경쟁이 벌어지고있다. 함경북도에서는 바다가양식을 대대적으로 벌릴데 대한 당정책을 높이 받들고 군중적으로 펼쳐나가는 단위를 따라잡기 위한 전투가 벌어지고있다. 바다물은도차이를 비롯한 여러 생활속건의 영향을 받지만 이곳 일꾼들과 양식공들은 자신만만한 경쟁심을 안고 전마생산과 현행생산상을 다같이 증시하고있다.

강원도에서는 도안의 주민들의 식생활향상을 위한 중요한 고리를 바다를 지니 유리한 조건을 효과있게 리용하는데서 찾고 바다가양식에 힘을 쏟고있다. 특히 도수산관리국안의 일꾼들은 이르는 곳마다에서 호소성이 강한 화선식정치사업과 기동적인 생산지휘로 아래단위들사이의 경쟁열을 더욱 고조시키고있다.

지역별, 생산단위별경쟁에서 어느 단위가 우승의 영예를 지니겠는가 앞으로 두고보아야 한다. 앞서가거나 뒤처지거나하면서 다시마생산에서 일어나고있는 커다란 혁신은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여 온 나라에 집단적경쟁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게 할데 대한 당정책의 정당성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전성삼

집단적경쟁열풍이 휘몰아친다

동서해에 펼쳐진 드넓은 바다가양식장들에 집단적경쟁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지역별, 생산단위별 경쟁열이 더욱 고조되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하루평균 천t이상의 다시마가 생산되고있다.

특히 부부, 웅진, 구미포바다가양식사업소의 일꾼들과 양식공들은 3월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로 4월계획수행에 박차를 가하여 근 1만 5천t의 다시마를 수확하고있다.

수도건설위원회 아래단위의 건설자들은 군인건설자들의 일당백공격속도에 자기들의 발걸음을 따라세우며 여러 호동의 살림집골조공사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위성과학자거리건설장에서 일떠섬, 시간마다 창조되고있는 기적과 위훈의 이 자랑스런 성과는 위대한 당의 평도법에 선군조선의 새로운 시대속도,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는 천만군민에게 크나큰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 주고있다.

본사기자 리병준

만경대혁명학원을 성심성의로 원호성, 중앙기관, 공장, 기업소일꾼들과 근로자들

하여 학원에 보내주었다. 지난해 4차례 걸쳐 1만 2000여점의 학습물품을 성의껏 마련하여 보내준 제조업 일꾼들의 소행은 만경대혁명학원 교직원들과 원아들이 선군혁명의 명맥을 무엇보다도 귀중히 여기는 우리 인민의 높은 정신세계를 감동깊이 받아안도록 하였다.

보건의 일꾼들과 정무원들은 혁명의 귀중한 보배들인 일꾼들의 건강을 잘 돌보는것은 만경대혁명학원의 일꾼들의 임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의무라고 하면서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지난 기간 여러차례에 걸쳐 많은 물자들을 보내주었다.

김일성사회의 청년동맹 중앙위원회의 일꾼들도 원아들을 위해 아낌없는 지성을 바치고있다. 이곳 책임일꾼은 혁

의 미래인 원아들을 위한 일에서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면서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그리하여 김일성사회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에서는 지난해 기간 학원에 현대적인 교육설비들과 문화오락기계를 그리고 수백kg의 산물을 보내주었다.

유원지총국에서는 만경대혁명학원의 환경을 보다 훌륭히 꾸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더욱 빛내이며 원아들의 가슴마다에 조국애, 향토애를 깊이 심어주도록 하기 위하여 뜨거운 지성이 깃든 향나무, 장미나무, 구슬꽃나무를 비롯한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학원에 넘겨주었다.

본사기자 백영미

박봉주 총리 황해남도물길공사정형 현지료해

박봉주총리는 황해남도 물길공사정형을 현지에서 료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피뎌는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황해남도물길공사에 대한 전제 일꾼들과 건설자들이 공사를 하루빨리 완공하기 위한 총투력을 벌리고있다. 총리는 물길공사정형을 료

하고 협의회를 진행하였다. 협의회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전투적 과업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투쟁으로 대중의 정신풀을 최대한 발휘시켜 시공공정별에 따르는 공사파제들을 어김없이 수행하며 공사속도를 높일데 대하여 강조되었다.

수준에서 보장하며 편관단위들에서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원만히 보장해주기 위한 조직사업이 이루어졌다.

한편 총리는 해주변경농기계공장을 돌아보면서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어 더 많은 농기계를 농촌에 보내줄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본사기자 전성삼

본사기자 전성삼

불굴의 정신력으로 조국의 대지를 넓혀나간다

홍 건 도 간 석 지 건 설 장 에 서

신념의 강자들앞에 불가능이란 없다

단숨에 기상이 나래치는 홍건도간석지건설장! 지금 여기서서 평안북도간석지건설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동지들이 3호방조제공사를 기한전에 끝내기 위해 부닥치는 난관과 애로를 과감히 박차고 대주적영웅주의와 무비의 헌신성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다.

사나운 파도와 싸우며 완공의 날을 앞당겨나가는 이들의 영웅적투쟁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용감한 바다의 정복자들이 어떤 정신력의 강자, 백결불굴의 투사들인가를 다시금 느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대담을 얻기 위한 간석지건설에 계속 힘을 모으면서 가능한 여러가지 방법으로 부집명을 늘려나가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무한한 격정속에 받아안던 날련합기업소일군들은 한자리에 모여앉았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원대한 구상을 현실로 꽃피우는데서 간석지건설자의 본래를 남김없이 표시하자.

일군들의 가슴은 이런 심장의 격으로 세차게 끓고있었다. 사실 련합기업소앞에는 올해안으로 3호방조제 1차물막이공사를 끝내야 하는 방대한 작업

량이 남아있었다. 막돌과 버럭만 하여도 수십만㎡, 이것을 수송하는데 필요한 연유만 하여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일군들의 얼굴마다에는 신심과 락안이 넘쳐있었다.

이때 책임일군의 목소리가 울려들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사자회의 강령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발동시켜야 한다고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 창조와 혁신의 가장 큰 예비, 기적창조의 근본열쇠는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시키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군들의 마음을 더욱욱 격동시켰다. 흥분된 일군들의 눈앞에는 것처럼 어려웠던 4호방조제공사의 일이 떠올랐다.

건설자들이 성난 파도와 힘겨운 공방전을 벌이며 1500m 정도의 방조제를 쌓아나갔을 때였다. 갑자기 방조제의 머리부분이 내려앉기 시작하였다. 갈량이 깊은것으로 하여 방조제가 무너져내렸던 것이다. 아무리 흙과 막돌을 쏟아도 순식간에 갈량속에 잠겨버리고 방조제는 도무지 정할 수 없었다. 여기에다 평화 수심℃을 오느라리는 강추위와 사나운 바다바람은 사람들을 공포 열구시켰다. 하지만

누구도 물러서지 않았다. 바다가 이기나 우리가 이기나 어디 한번 맞서보자! 이런 불굴의 정신력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힘을 낳았다. 건설자들은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고 제방을 끝끝내 편철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그때 일을 돌이켜보는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원대한 대자연계조구상을 기어이 현실로 꽃피우었다는 사상적각오를 가지고 무비의 용감성을 남김없이 발휘할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다시한번 되새기며 공사기일을 무조건 보장할 열의와 가슴을 끓였다.

그들의 결의는 그레도 작전안에 반영되었다. 흙과 막돌을 수송하는데 있어서는 가능한 한 대량수송력을 집중하기 위한 대책이 세워졌다.

전투수칙을 알리는 발파의 폭음이 온 간석지를 들끓다놓았다. 만단의 전투준비를 갖추고 공격명령을 기다리고있던 련합기업소의 모든 령방이 공사장에 총집중되었다. 함으로 놀라운 화력이 공사장에 펼쳐졌다.

련합기업소일군들의 화신식 정지사업이 건설자들의 심장을 세차게 두드렸다. 공사장에 전개된 방풍선전차들이 방사로의 일제사격과 같은 위력을 과시하였다. 붉은기들이 긴 방조제를 따라가며 뒤덮어 공사장은 하나

나갔다. 가족들도 전투장으로 달려나와 건설자들을 힘껏 고무하였다.

3월 중순, 끝끝내 이들은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발파소리를 높이 울렸다. 건설자들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터친 만세소리가 건설장을 진감시켰다. 결과 이들은 3호방조제건설에서 또다시 큰결승을 내디딜 수 있었다. 이어 그들은 4월에 들어와 25만산대발파도 성과적으로 진행하여 공사기일을 앞당길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이런 투쟁기풍이 어찌 체석장에서만 발휘된것이라.

은전사들속에서도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그들은 하루평균 수천㎡의 흙과 돌을 실어나르기도 성하지 않아 전투장을 떠나지 않고 한량이라도 더 뛰기 위해 열정을 바치었다. 강추위속에서 자동차를 정비하고 적재함에 붙은 흙을 떨어내느라 밤을 지새우기도 하였다. 그들모두가 조국기 기억하는 간석지건설자가 되겠다는 열의로 시련과 난관을 웃으며 뚫고나갔다.

정신력의 강자들앞에 불가능이란 없었다. 자연을 길들여가는 바다의 정복자들의 불굴의 투쟁에 의하여 너달동안에 1천수백㎡의 방조제가 건설되는 기적이 창조되었다.

다 음 교 대 를 위 하 여

석화간석지건설사업소에서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작업교대문제를 중요하게 틀어쥐고나갔었다. 지난 기간 사업소의 건설자들은 교대조직을 성과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교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 때 교대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는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부집 명 언 직 이 제 한 되 어 있는 우 리 나 라 에 서 간 석 지 를 개 관 하 여 부 집 명 언 직 의 일 군 들 은 늘 리 는 것 이 매우 중 요 하 고 또 절 실 한 문 제 입 니 다.》

지난 어느날 아침 체석장을 돌아보는 사업소의 일군들은 생각이 깊어졌다. 작업능률을 높여 더 많은 흙과 돌을 보충하여야 하겠다는 제 몫처럼 그 방도가 떠오르지 않았다.

그동안 설비관리에도 힘을 넣고 작업공들과 발파공들을 비롯한 기능공들의 기술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진행하여 종전보다 작업능률을 올렸지만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다. 다시 설비상태도 알아보고 방도를 찾기 위해 서의는도

해보던 일군들은 작업공들속으로 들어갔다. 그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토론을 거듭하던 일군들은 이런 결론에 도달하였다.

- 교대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따라 작업능률이 크게 오르내린다.

일군들은 그 실현을 위해 우선 교대시간을 철저시키는 문제를 중시하였다. 사업소에서는 령방을 두개 조로 편성하여 작업을 하고있었다. 두 조사이의 사회주의경쟁도 조직하고 작업실적을 놓고 총화평가사업도 실속있게 하였다. 결과 건설자들의 열의는 높아졌고 서로 경쟁에서 이기려고 전투를 벌였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가 된것은 작업실적을 더 높였다고 하면서 교대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었다. 이것은 다음작업조에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일군들은 작업조교장간 교대시간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 문제를 강하게 틀어쥐고나갔다. 여기서 일군들이 잘한것은 총화사업을 실정에 맞게 한것이다. 작업실적이 높다고 하여도 교대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평가에서 고려하였다.

일군들은 기술혁신문제에도 힘을 넣었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작업공들은 그계획을 수행하기 전에는 교대를 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이 문제를 풀자면 작업공들이 어떻게 하냐 작업계획을 수행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하였다. 방도는 기술혁신밖에 없었다.

현 지 보 도 세 차 게 휘 물 아 지 는 비 약 의 열 풍

홍 건 도 재 석 장 에 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무슨 일이나 해내고야말겠다는 사상적각오를 가지고 달려들어야 하며 일단 시작한 일은 끝장을 보는 혁명적기풍을 세워야 합니다.》

여기는 홍건도체석장이다. 지금 방조제건설에 필요한 흙과 돌보장을 위한 전투가 한창이다. 한창이 나뉘는 붉은기, 겁없이 움직이는 굴착기들, 적재함에 흙과 돌을 가득 싣고 기운차게 달리는 자동차들...

체석장의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비약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친다. 바다의 정복자들의 혁명적 열정이 차넘친다.

웅—쿵—

한발파를 성과적으로 끝낸 체석장이 또다시 활기 시작한다. 신호수의 호각소리에 맞추어 자동차들이 적재함에 체석장에 들어간다. 그리고 굴착기들이 경쟁이라도 하는듯 한 걸음 휘저으며 흙과 돌을 퍼담아 실어준다. 적재함이 넘쳐나기 흙과 돌이 가득 실려진 신호기발을 흔드는 처리의 목소리가 체석장에 울린다.

《오늘도 우승을 양보하지 마십시오.》

그에 화답하듯 손을 흔들어보이던 청강기계화사업소의 운전사가 경계를 울리며 방조제를 향하여 자동차를 몰아간다. 시간이 흐를수록 체석장은 불도가

나뉘는 세차게 끓어번진다. 현장속보판에 실린 글밭이 전투장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킨다.

《오늘계획을 130%로 넘쳐 수행!》

그 글밭을 바라보는 운전자들의 얼굴마다에 다진 맹세 끝까지 지킬 결사의 각오가 어려웠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의 전투적열정을 기어이 관철할 불라는 열의로 달고 날을 이어온 이들인것이다.

한쪽에서 흙과 돌수송으로 붐고있을 때 다른쪽에서는 작업자들의 동음이 높이 울린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방금전까지 세차게 끓던 체석장에 정적이 깃든다.

《발파준비!—》

체석장을 책임진 일군의 맹전 구령소리가 울린다. 긴장한 공기가 흐르는 속에 발파공들이 익숙된 숨소리 발파구멍에 폭약을 재우고 다짐작업을 진행한다. 이어후 발파준비가 끝났다는 보고가 들려온다.

이제 일군의 웨침이 체석장에 메아리친다.

《전파!》

훈전기가 곳곳에서 치솟는다. 동시에 돌박산이 통째로 움푹 들어온다.

웅—쿵— 발파소리가 홍건도를 진감하는 속에 돌과 흙이 통째로 쏟아져내린다.

체석장이 또다시 들끓는다. 굴착기들과 자동차들의 발동소리, 집체같은 바위들에서 구멍을 내는 작업기들의 동음...

경애하는 원수님께 승리의 보고를 드리려는 용감한 간석지건설자들의 드높은 열정으로 체석장에 비약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친다.

간 석 지 건 설 자 들 이 자 랑 하 는 일 군 들

간석지건설장에 가면 건설자들도 모두가 자랑하는 일군들이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간석지개관사업을 힘있게 벌리기 위하여서는 그대 대한 보장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그들이 바로 리광동호무를 비롯한 국가검열위원회 일군들이다. 건설자들과 똑같이 현장에서 침식하며 조국의 대지를 넓혀가는 대자연계조사업에 자기의 모든것을 장거리 바쳐가고 있는 이들은 온 건설장이 자랑하고있다.

이들은 언제나 건설자들과 함께 건설을 책임졌다는 주인 된 자각을 안고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 일처럼 뛰어다니며 걸린 문제를 제때에 풀어나고 있다.

연인애가 돌을 가득 싣고 달려온 자동차가 고장으로 멈춰 선적이 있었다. 이 사실을 안 한 일군은 그걸로 해당 사업소에 달려가 부속품을 구해가지고 밤길에 나섰었다. 험치 않은 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는 대자연계조사업에 자기의 모든것을 장거리 바쳐가고 있는 이들은 온 건설장이 자랑하고있다.

이들은 언제나 건설자들과 함께 건설을 책임졌다는 주인 된 자각을 안고 무슨 일이 생기면 뛰어다니며 걸린 문제를 제때에 풀어나고 있다.

연인애가 돌을 가득 싣고 달려온 자동차가 고장으로 멈춰 선적이 있었다. 이 사실을 안 한 일군은 그걸로 해당 사업소에 달려가 부속품을 구해가지고 밤길에 나섰었다. 험치 않은 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는 대자연계조사업에 자기의 모든것을 장거리 바쳐가고 있는 이들은 온 건설장이 자랑하고있다.

이 처 럼 이 들 이 건 설 에 필 요 한 자 재 가 있 단 히 보 장 되 도 록 하 기 위 해 달 린 받 기 는 그 열 마 인 지 모 든 다.

이 처 럼 이 들 이 건 설 에 필 요 한 자 재 가 있 단 히 보 장 되 도 록 하 기 위 해 달 린 받 기 는 그 열 마 인 지 모 든 다. 이들은 어렵고 힘든 일을 자진하여 맡아안음뿐 아니라 간석지건설자들이 절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이신작적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가고있다. 현장에서 건설자들과 물가도 뛰우며 쓰고 비도 함께 맞으며 건설기를 앞당기기 위해 헌신의 맘을 아낌없이 바치고있다. 하기에 건설자들은 간석지건설을 자기 일처럼 여기고 적극 도와주고 있는 이들의 모습에서 큰 감동과 고무를 받고있다.

어 디 서 나 이 런 투 쟁 기 풍 , 창 조 본 태 가 필 요 하 다

수 동 탄 광 일 군 들 의 사 업 에 서

《어떻게?》와 《무조건!》

수십동의 종업원살림집이 신설 및 개건되었고 탄부원이 완공되어 문을 열었다. 로라스케트장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나오고 덩치큰 온실마다에서 수확되는 남새들이 탄부원의 집안에 속속 가랑고있다.

물론 다른 탄방들에 비해 특별히 요란한 성과라고는 할수 없다. 하지만 이런 종업원들이 자랑담아 손가락까지 폼아하며 자랑을 하는것은 그자체가 아니다. 본질은 바로 그러한 변화가 1년 남짓한 짧은 기간에 일어났다는데 있다. 일터의 어제와 오늘의 차이뿐 아니라 더욱 변모될 매일의 모습도 엿볼수 있게 하는 시사적인 전변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모두가 힘과 열정을 합쳐 안아온 결실이다. 하지만 대오의 기관차가 되어 내달려온 탄광책임일군의

님도록 불현듯 생활을 하고있는 일부 탄부들과 가족들의 모습이 있었다. 탄부들은 울헤부리는 어떻게 하나 석탄생산을 추켜세워 보겠다고 갠을 불어살다싶이 했다. 가족들까지도 탄부들을 도와 힘차라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고있었다. 그들의 모습과 살림집들이 대조를 이루며 눈앞에서 초점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에 열린 회의에서는 탄부들의 살림집문제가 제일먼저 논의되었다.

탄광이 수해피해를 입었던 두 해전에도 이 문제는 여러번 토의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어떤 일군들은 살림집건설에 필요한 로력과 자재량을 따져보며 머리를 굴렸지만 대오를 위해 살림집들이 대조를 이루며 눈앞에서 초점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에 열린 회의에서는 탄부들의 살림집문제가 제일먼저 논의되었다.

탄광이 수해피해를 입었던 두 해전에도 이 문제는 여러번 토의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어떤 일군들은 살림집건설에 필요한 로력과 자재량을 따져보며 머리를 굴렸지만 대오를 위해 살림집들이 대조를 이루며 눈앞에서 초점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에 열린 회의에서는 탄부들의 살림집문제가 제일먼저 논의되었다.

탄광이 수해피해를 입었던 두 해전에도 이 문제는 여러번 토의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어떤 일군들은 살림집건설에 필요한 로력과 자재량을 따져보며 머리를 굴렸지만 대오를 위해 살림집들이 대조를 이루며 눈앞에서 초점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어떻게?》라는 타산을 앞세우기 전에 《무조건!》이라는 실천력부터 지켜야 했다. 바로 물적구령과 이신작적

그것이 탄부들의 생활을 위해서는 돌우에 돌을 끼워야 할 인민간의 출발점이고 실천의 원동력이었다.

한달 남짓한 기간에 수십동의 종업원살림집을 신설 및 개건하기 위한 목적이 세워졌다. 그 실현을 위한 길이 어떤 노력과 의지를 필요로 하는가 하는것을 모두는 잘 알고있었다.

이신작적

이었다. 석탄생산으로 로력문제가 긴장한 조건에서 탄광의 일군들은 그 예비물 따름이던 자기 자신들에게서부터 찾았던것이다.

한개 호한게 막돌을 수습하여 등짐으로 나르던 남포리는 새벽벽결에, 한㎡, 한㎡의 목재, 한t의 목재와 세멘트를 장만해온 밤길에도 제일 먼저 적혀진것은 초급당비서의 발자욱이었다.

책임일군의 이신작적, 그것은 열매바더의 돌격구령보다 위력했고 높은 요구성을 대신했다. 공사의 전과정에 늘 현장에 붙어살다싶이 하며 어렵고 힘든 일을 도맡아하는 그의 뒤를 따라 탄광의 당, 행정일군들도 두 어깨에 무거운 짐을 걸머졌다. 비생산부문의 종업원들까지 이에 함께하였다.

한 남새들이 가달았다. 그렇게 힘들게만 여겨지던 탄부원도 드디어 완공되어 올해 3월말부터 정상운영에 들어갔다.

여기에 우리는 많은것을 전하지 못한다.

헤다다. 석탄생산에서 탄광으로 제일 뒤자리를 차지하던 청년들이 앞선 단위들의 대열에 당당히 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놀래운 이야기며 큰 규모의 가내축산사업이 조직되어 탄부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에 크게 이바지되고있는 사실...

근사복무기간 못하지 않은 일로 아버지와 하나밖에 없는 누이동생마저 잃었던 제대병사 최진혁동무는 또 어떻게 되어 합속생활을 하고있는 탄광초급당비서와 탄방에서 같이 생활하게 되었으며 수송시료공장 초급당일군의 돌격구령과 한기정을 이루게 되었는데가 늘일이 적응을 수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도 팔을 끼고 어깨를 결고 한진호는 전우, 동지가 되자면 그의 리상과 본체가 성립됨을 따서서는 진자배기일군이 되라.

심심산골에서도 로동당원새소리가 울려나오도록 하기 위해 대오의 앞장에서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고있는 수송탄광 초급당비서 최철호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의 실례를 놓고 우리는 이러한 대담을 찾게 된다.

본사기자 김충성 리영민



철산봉이 자랑하는 녀맹지원소대원들

무산군 남산노동자구에 사는 30여명 녀성들에 대한 이야기

우리는 무산광산련합기업소로 친분광산 1광구 <장백 1>호 굴착기의 작업장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한다.

철광석을 취급하는 폐광고이는 굴착기, 크리롤 물고 연방들이 다치는 대형물자자동차, 착정기의 세찬 동음이 철산봉에 메아리친다.

한순간 <녀맹지원소대가 온다!>는 누군가의 웨침소리에 모두가 잠시 일손을 멈추고 한곳에 눈길을 던진다.

봄을 기를 추켜들고 등에는 배낭을 지고 서서히 녀성철산봉을 향해 녀성들의 모습이 눈앞에 안겨온다. 무산군 남산노동자구의 30여명 녀맹원들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무산광산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신 감격적인 소식에 접한 무산군 남산노동자구 초급녀맹위원회 위원장 채정희동무와 비롯한 녀맹초급원들의 마음은 눈앞의 철산봉으로 달렸다. 그날 우리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발자취가 강력한 철산봉에 오른 그들은 <장백 1>호굴착기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북방의 강추위로 마다하지 않고서도 몸소 철산봉에 오셔서 대형굴착기의 작업모습을 오래도록 보아주시면서 굴착기 운전공들의 소아를 높이 치하해 주신 어버이장군님.

눈물길에 젖은 그들은 철산봉을 내린 그들은 한자리에 모여앉았다.

리욱봉동무가 <글쎄 우리 장군님께서 세찬 눈보라를 헤치시며 철산봉에 오셨으니...>라고 하고 눈물을 적셨다. 최정숙동무는 <광부의 안전인 저는 이런 추운 날의 철산봉을 생각조차 못했어.> 하고는 더 말을 잇지 못하였다. ...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에 들끓는 그들의 어깨위에 가벼이 손을 얹으며 채정희동무가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장군님께서 그토록 높이 평가해주신 <장백 1>호굴착기가 언제나 혁신의 앞장에 서도록 운전공동무들을 힘껏 돕자.>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린 미더운 철산봉의 광부들, 더 많은 죄를 짊어 강성국가건설에 이바지하려는 그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을 아끼고 무엇을 서슴으랴.

다달이 철산봉으로 이어진 이들의 발걸음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채정희동무가 가정에서 많은 지원물자를 마련하고있을 때 최정숙, 황영숙동무와 남산노동자구의 녀맹원들은 광부의 안전을 위한 자기들이 응당 그 일의 앞장에 서야 한다며 팔을 걷고나섰다. 조영숙동무는 광부들에게 관심과 용기를 안겨줄 마음만큼 밝은 기쁨을 만들었다. 유춘희동무는 밥을 새워가며 정제된 물을 위한 대분을 만들고 리욱봉, 김보금, 서경순동무를 비롯한 녀맹원들은 지원물자를 마련하는 바쁜 속에서도 기량훈련에 달라붙었다.

그해의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녀맹원들은 성의껏 마련한 첫 지원물자를 안고 <장백 1>호 굴착기를 찾았다.

어버이장군님의 현지지도 로정을 따라갔으며 대형굴착기 <장백 1>호에 이른 녀맹원들은 굴착기 운전공들에게 지원물자를 더 가져가라는 말이었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지원물자를 더 가져가라는 말이었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지원물자를 더 가져가라는 말이었다.

부러 녀맹지원소대원들은 메달 23일이 되던 대형굴착기 <장백 1>호의 작업장을 찾아 철산봉으로 올랐다.

처음 17명으로 시작된 지원소대가 30여명으로 늘어났다. 이들은 지원물자를 마련하는 동시에 힘을 합쳐 자체의 축산기지를 꾸리었다.

그뿐이 아니다. 용접부, 각종 도색부, 로동화, 장갑... 지난 5년간 녀맹지원소대원들이 운전공들에게 안겨준 지원물자는 풀종이나 수량에 있어서 실로 적지 않다.

그 나날 녀맹지원소대원들의 심장은 과연 무엇으로 뜨겁게 고동쳤던가.

채정희동무가 소중히 간수하고있는 보물인 수첩에는 이런 글이 적혀있다.

<2010년 10월 22일, 일주일만에야 나는 병원에서 의식을 차렸다. 폐렴은 23일이다. 우리 소대가 <장백 1>호 굴착기를 찾아가는 날이다. 그런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아니! 이렇게 누워있을수는 없다. 소대원들이 기다린다. 일어 서자, 일어나야 한다!>

<2011년 1월 23일, 눈보라가 퍼지고 바람이 모질게 불어친다. 철산봉의 기온은 영하 30°C로 으레내린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서로 고무격려하며 철산봉으로 올랐다. 어버이장군님께서는 이보다 더 추운 겨울날에 철산봉에 오르신다는 장군님의 발자취를 따라 서자고 떨쳐나선 우리와 이만한 추위에 물러서지는가. 어서 가자, 철산봉으로!>

<2012년 3월 23일,

전국의 수많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은 각지에 꾸려진 녀맹사업자들을 응원하고 있다. 그들의 속삭임이 보정해 주기 위해 남모르는 수고를 바쳐가고있는 녀맹사업자분들 일군들속에는 백승혁명사적지 탐사속영소 일군들과 녀맹원들도 있다.

위대한 명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혁명전적지와 사적지에 대한 탐사자가 많이 늘어나는 데 맞게 교통수단을 현대화하여 수송능력을 높이며 탐사속영소를 더 많이 건설하고 후방공급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10여년전 일이 었다.

이곳 탐사속영소에서는 형일영격대식으로 살며 일할때 대한 녀맹원도 임이 있었는 데 소장 장광덕동무가 불같은 토론했었다.

<탐사보장사업은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들부터가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고 향일혁명투사들처럼 살며 투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날도 장광덕동무가 불같이 자재로 부업지도 일군구 집집순도 키워 탐사속영소의 생활상편의를 위한 조치도 열렬히 호소하였다. 녀맹원들은 한결같이 호응하였다.

대중의 양양된 열의를 더욱 북돋아주기 위해 장광덕동무는 당조직의 지도밑에 평안남도혁명사적관, 삼화혁명사적지, 만경대혁명사적관 등을 참관하는 녀맹원들의 탐사행군을 조직하였다.

유식참에는 향일맹재산참가자들의 회상발표일이 진행되었고 녀맹원들의 가슴가슴은 혁명열, 투쟁열로 세차게 끓어 넘치었다.

모두가 분발하여 일떠섰다. 녀맹원들은 본래의 특한 후방기지를 꾸리기 위한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이들은 서로 돕고 이끌어 이익하게 투쟁하여 구내에 1500㎡의 양어장을 꾸려놓고 700㎡의 종합가금기도 일떠세웠으며 수백㎡의 돼지우리도 건설하였다. 뿐만아니라 부업지에서 많은 부식물을 생산하여 탐사생들의 생활상편의를 훌륭히 보장하였다.

하지만 장광덕동무는 만족을 몰랐다. 그는 탐사속영소의 내외부를 혁명전통교양장으로 더 잘 꾸릴 목표를 세우고 그 실현에 달라붙었다.

그는 녀맹원들의 창조적지혜를 발휘하여 청사의 1층과 2층 복도벽에 혁명전통교양주제의 직판물들을 게시함으로써 탐사속영소를 찾는 탐사생들모두가 우리 당의 불멸의 혁명전통을 가슴 깊이 체득할수 있게 하였다. 탐사속영소의 바깥벽들에 빛나무와 이광나무를 부각장식하여 탐사생들의 가슴속에 백두밀림의 정수가 안겨지도록 하였다.

구내에 혁명전통주제의 조각군상들을 세울 때였다. 누구도 조각을 해본적이 없었으나 선포나서지 못하고있었다.

백승혁 명사적지 탐사속영소에서

향일혁명투사들의 투쟁기풍이로

그때에도 장광덕동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향일혁명전통들의 투쟁기풍으로 일한다면 못해 낼 일이 없다고 하면서 대중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는 자기가 직접 조선혁명박물관을 비롯한 중앙의 여러 단원들을 다니며 조각군상들의 형성안을 그려가지고 돌아와 대중의 집체적지혜를 합쳐 하나하나 완성하였다.

늘 많은 일감을 맡아 수행하지나 그는 밤잠을 잊다싶이 하며 뛰고 또 뛰었다. 심하게 지근한 그는 병으로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손을 잡곤 하는 소장이었다.

지난해 여름에도 그는 병으로 도인민병원에 실려간적이 있었다. 그때 치료를 받고 정신을 차린 그는 의료일군에게 절절히 말했다.

<정기사의 시작이 가까와오는데 할 일이 많은 내가 어떻게 담판히 누워있겠습니까. 내 병은 내가 잘 압니다. 맘도 편해야 병도 낫지 않겠습니까.>

그걸로 그는 부업지도 달려가 총일련과 함께 일손을 잡았다.

이런 일일심을 지니고 헌신적으로 투쟁한 결과 오늘 이곳 탐사속영소는 2층대혁명붉은기를 수여받았는 소장 장광덕동무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 참가하는 영광을 지니었다.

오늘도 장광덕동무와 비롯한 이곳 일군들과 녀맹원들은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향일혁명투사들의 정수가 안겨지도록 하였다.

구내에 혁명전통주제의 조각군상들을 세울 때였다. 누구도 조각을 해본적이 없었으나 선포나서지 못하고있었다.

과 치료에 도입하는 과정에 이룩된 선진적인 연구성과와 경험들을 깊이 있게 해설하였다.

토론회에서는 논문을 발표한 참가자들에게 증서가 수여되었다.

[조선중앙통신]

토론회에서는 논문을 발표한 참가자들에게 증서가 수여되었다.

[조선중앙통신]

그들의 가슴속에는 어버이장군님께서 철산봉에 오셔서 <장백 1>호굴착기의 작업모습을 보아주시는 뜻깊은 주제 98 (2009)년 2월 23일이 소중히 간직되어있다.

하기에 이들은 지난 5년간 메달 23일을 스스로 <장백 1>호굴착기 운전공들을 위한 지원의 날로 칭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김없이 철산봉에 생의 뚜렷한 자국을 새겨왔다.

하나같이 수습하고 소박한 녀맹지원소대원들, 무산의 광부들이 이들을 철산봉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하고있다.

위대한 명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나라에서 녀성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있으며 가정생활에서나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섯해전 2월이었다.

제16차 국내외 동포들의 평양의학과학도논문회 참가자들

꽃바구니 진정,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대표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안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5일 제16차 국내외 동포들의 평양의학과학도논문회 참가자들이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그들은 조국과 민족의 융성번영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셨으며 주제적인 의학과학이 나아가길 길을 환히 밝혀주시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제16차 국내외 동포들의 평양의학과학도논문회 참가자들

꽃바구니 진정,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대표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안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5일 제16차 국내외 동포들의 평양의학과학도논문회 참가자들이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그들은 조국과 민족의 융성번영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셨으며 주제적인 의학과학이 나아가길 길을 환히 밝혀주시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제16차 국내외 동포들의 평양의학과학도논문회 참가자들

꽃바구니 진정,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대표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안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5일 제16차 국내외 동포들의 평양의학과학도논문회 참가자들이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그들은 조국과 민족의 융성번영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셨으며 주제적인 의학과학이 나아가길 길을 환히 밝혀주시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제16차 국내외 동포들의 평양의학과학도논문회 참가자들

꽃바구니 진정,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대표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안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5일 제16차 국내외 동포들의 평양의학과학도논문회 참가자들이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그들은 조국과 민족의 융성번영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셨으며 주제적인 의학과학이 나아가길 길을 환히 밝혀주시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제16차 국내외 동포들의 평양의학과학도논문회 참가자들

꽃바구니 진정,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대표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안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5일 제16차 국내외 동포들의 평양의학과학도논문회 참가자들이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그들은 조국과 민족의 융성번영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셨으며 주제적인 의학과학이 나아가길 길을 환히 밝혀주시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제16차 국내외 동포들의 평양의학과학도논문회 진행

제16차 국내외 동포들의 평양의학과학도논문회 참가자들

꽃바구니 진정,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대표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안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5일 제16차 국내외 동포들의 평양의학과학도논문회 참가자들이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그들은 조국과 민족의 융성번영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셨으며 주제적인 의학과학이 나아가길 길을 환히 밝혀주시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제일본조선청년동맹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제일본조선청년동맹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김두섭부위원장 단장으로 하는 제일본조선청년동맹대표단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대표단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할아버님인 김보현선생님과 할아버님인 리모익니사의 묘, 어버이님인 김형직선생님과 어머님인 김장산선생님의 묘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묵상하였다.

이어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만경대일군분들의 혁명활동을 보여주는 사적자료들과 사적물들이 전시되어있는 만경대혁명사적관을 참관하였다.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대표단원들은 유서깊은 력사의 집에 들어서는 불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적물들을 주의 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방문을 마치고 단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꼭경에도 그러하듯 만경대는 조선인민뿐 아니라 우리 재일동포들의 마음의 고향이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어

마신아, 최지에 학생 국제피아노콩쿨들에서 각각 1등 생취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희망과 재능을 활짝 꽃피우고있는 우리 학생소년들이 국제무대에서 음악신공으로 이름떨치고있다.

우리 나라의 마신아학생이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로씨야의 헬싱키 노브고로드에서 진행된 제9차 라호미니노브명칭 국제피아노콩쿨에 참가하여 1등을 생취하였다.

피아노연주평가를 발전시키고 피아노연주콩쿨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우리 나라와 중국, 핀란드, 로씨야에서 수십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콩쿨은 피아노를 전문으로 하는 7살부터 16살까지의 학생들에 예선(선발심사경연)을 거쳐 본선(2, 3선에 올라갈 실력자들)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마신아학생은 세련된 연주기와 형상을 요구하는 지정곡들을 훌륭히 연주하여 심사위원들과 예회자들의 높은 평가와 절찬을 받았다.

차이콥스키명칭 모스크바국립음악대학 교수인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심사위원들과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마신아학생이 나이가 어리지만 힘든 곡들을 매력있게 연주하였다고 하면서 그의 진도가 참으로 양묘하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콩쿨예막식에서는 뛰어난 피아노연주기를 보여준 마신아학생에게 1등상장이 수여되었다.

인터넷 상에서 진행된 2013-2014년 헬레피아노콩쿨에 참가한 우리 나라의 7살 최지에학생도 1등을 하였다.

이 콩쿨에는 우리 나라와 중국, 도이월란드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47명의 소년들이 참가하였다.

콩쿨은 참가자들의 나이를 1부류(6-8살)와 2부류(9-11살)로 갈라 그들의 피아노연주평가를 인터넷에 올린 심사자들이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지난 4월 23일에 발표된 심사결과 최지에학생이 1등으로 평가되고 상장이 수여되었다.

나머진 마신아, 최지에학생이 거둔 이번 성과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우월성에 대한 또 하나의 파시적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을 다스쳐가는 우리 인민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조선중앙통신]

우리 사회는 인간사랑의 회원입니다

이제쯤께 해주곤 하였습니디

그들은 작업반원들과 함께 예술소품들을 준비해가지고 찾아와 저의 집에 웃음꽃을 피워주곤 하였습니디

저를 위해 사랑과 정을 아낌없이 바친 사람들을 이 짧은 글에 다 소개할수는 없습니디

사랑을 안고, 정을 안고 수시로 찾아와 저의 집을 반갑게 열곤 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저는 온 세상에 이렇게 소리 높여 웨치고있습니디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을 위하여 나는 오진 모신 우리의 사회주의는 참다운 미덕의 화연, 인간사랑의 대화원이라고 믿습니디

벽동군 남중리 4인민반 특무영예군인 김철

인도네시아 특별명전권대사 연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사이의 외교관계설정 50돐에 즈음하여 인도네시아 주재 인도네시아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5일 대사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리경식 외무성 부상, 조선인도네시아친선협회 위원장인 소호인 대문화협력위원회 부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초대되었다.

인도네시아공화국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건강을 축원하러, 존경하는 주셀로 방방 유도로 도내대통령각하의 건강을 축원하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발전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그때로부터 6년세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와 한민민민에서 생활하는 리당비서 김명철동

독자의 편지

제가 오늘 이렇게 펜을 들게 된것은 6년이라는 나날 특무영예군인인 저를 위해 변함없이 뜨거운 사랑과 정을 쏟아부었고는 벽동군 남중리대항의 일군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소행을 널리 자랑하고싶어서입니다.

제가 군사복무중 뜻하지 않게 허반신마비라는 진단을 받고 왔을 때 저를 먼저 차에서 안아내리우며 힘을 주고 삶의 희망을 안겨준 사람은 리당비서였습니디. 그때 저는 뜨거운 눈물을 삼키며 리당비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디.

그때로부터 6년세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와 한민민민에서 생활하는 리당비서 김명철동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떠나갔다

김성수를 단장으로 하는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5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대표단 도착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미국이 조선민족에게 감행한 전대미문의 반인륜적 대범죄를 폭로, 단죄한다

미국 의 인 권 법 비 망 록

미국은 조선민족에게 온갖 불행과 고통을 들의뢰는 불구대천의 원수, 백년속적이다. 미국이 수세기동안 조선에 대한 침략과 약탈을 일삼으면서 조선민족에게 저지른 범죄는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다.

그러한 미국이 그 무슨 인권제 판관행세를 하면서 그 누구의 있지도 않는 《인권》을 운운하는것이 야말로 정의와 양심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고 아메리카의

1. 세기를 이어오는 날강도적인 침략에 의한 조선민족 자주권의 잔혹한 유린

자주권은 민족의 생명이다. 침략은 자주권과 인권에 대한 가장 악랄한 도전이다. 미국은 침략선 《서문》호의 침입을 시작으로 백수십년동안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을 일삼으면서 조선민족의 자주권을 잔혹하게 유린하여왔다.

미국은 1866년 침략선 《서문》호를 조선침략의 선전대, 척후대로 내세워 피바람내나는 침략의 첫발을 내디딘 이후 1867년과 1868년, 1871년 《와슈셋트》호, 《해 난도아》호, 《차이나호》 등을 편속 우리 나라에 들어밀어 약탈과 무력침공을 감행하였다.

미국은 우리 인민의 항건으로 침략적 목적을 달성할수 없게 되자 1894-1895년 청일전쟁과 1904-1905년 러일전쟁때 일본의 편을 들어주고 조선침략을 로골적으로 지지해주었으며 1905년에는 일본의 조선점령을 인정하는 《하르토-가르타 협정》을 체결하여 일제를 조선침략의 돌격대로 내몰았다.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비호 밑에 일제는 우리 나라를 40여년동안이나 강점하고 조선민족에게 상가점 개만도 못한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하였다.

일제가 패망한 후 미국은 조선침략의 전면에 나서서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엄중하게 유린하였다. 1945년 9월 《해방자의》 말을 쓰고 남조선에 잠입한 미국은 맥아더사령부 포고 제1호로 남조선인민들이 미정령군의 명령에 절대복종해야 한다는것을 선포하고 우리 인민들에 대한 야수적인 만행을 본격적으로 개시하였다.

미국은 《검열범위를 전조선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침략자들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던 끝에 1956년 6월 25일 우리 공화국에 대한 무력침공

2. 잔인무도한 조선민족학살만행

미제가 조선에 침략의 첫발을 들여놓은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선민족에게 감행한 야수적학살만행은 고급등서여 불개없는것이다.

1) 인간살육으로 시작된 조선침략

미국은 《조미조약》 등을 강압조약하여 조선에 대한 침략을 본격적으로 개시한 지난 19세기부터 팔산개발, 선교활동 등을 벌려놓으면서 우리 민족의 재부를 마구 약탈해가는 한편 조선사람들을 다치는데로 학살하였다.

상인, 선교사, 의사, 교민 등의 략을 쓰고 조선에 기어든 미제살인자들은 조선사람의 생명을 파리묵슴만큼도 여기지 않았다.

갑산, 수안, 운산 등지의 광산들과 서울-인천철도부설건, 서울의 전차, 전화, 수도시설경건등 등을 장악한 미제살인자들은 우리 인민들의 피땀을 악착하게 짜내면서 벌길만한 것까지 가하여 눈뜨고는 볼수 없는 야수적으로 잔인한 만행들을 감행하였다.

광산을 개발하자 무너진 굴속에서 손을 내뻛쳐 살라달라고 애원하는 광부들 《물린 사람은 아무래도 죽기미련이다.》고 하면서 도끼로 사정없이 내리쳐 팔을 자르고 죽게 내버려두는가 하면 기계에 휘갈려 찢음을 받던 보편서 《기계를 세우면 조선사람 땀방울보다 더 비싼 황금을 손해본다.》고 뇌까리면서 내버려두어 무참히 학살하였다. 소년들을 십살품으로 삼아 사냥개를 내몰아 물어뜯게 하여 죽인 야수도 바로 미제살인귀들이다.

땅에 떨어진 사과를 주었다고 하여 마에 청강수로 《도적》이라는 글자를 새긴 귀족같은 만행은 오늘날도 우리 인민의 치솟는 격분속에 생생히 뇌리에 기억되어있다. 그렇게 죽어간 조선사람은 수만명을 헤아린다.

미국은 일제가 조선민족에게 저지른 야수적만행을 도와준 공범자

인종우예들의 침략적본성을 철면피하게 드러낸 적반하장의 극치이다. 인권법죄의 피고석에 내앉혀야 할 주범은 다행이던 미국이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와 미군범죄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 북측분부는 미국이 역사적으로 조선민족에게 저지른 반인륜적, 반인권적대범죄를 만천하에 폭로, 단죄하기 위해 이 비망록을 발표한다.

미국은 3년간의 조선전쟁에 방대한 무력과 전쟁장비, 15개 추종국가군대까지 끌어들여 공화국을 먹여보려고 발광하였으나 영웅적인 조선인민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지 않을수 없었다.

조선전쟁에서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한 미국은 웅대한 교훈을 찾아내선 정전후 남조선에 계속 가로타고 앉아 완전한 식민지로, 인권폐허지대로 전환하였다.

미국은 남조선에 핵무기를 비롯한 각종 대량살상무기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여 우리 민족을 열백만 전멸시키고도 남을 세계최대의 핵화약고로 만들어냈다.

그리고 년대와 해를 거듭하면서 《팀 스피리트》, 《키 리졸브》, 《독수리》, 《출시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악명높은 핵전쟁연습들을 벌려놓으며 우리 민족의 머리 위에 핵암화의 위협을 끊임없이 불어왔다.

1960년대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과 《EC-121》대형간첩비행기사건, 1970년대의 판문점사건 그리고 《9일작전계획》, 《5일작전계획》, 《작전계획 5027》, 《작전계획 5029》, 《공공국지도달대미계획》, 《맞춤형억제전략》 등은 미제가 우리 공화국을 침범하고 전조선강도를 가로타고있어 우리 민족을 미국의 식민지노예로 만들려고 애써오던 발광하였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침략과 전쟁으로 조선민족을 전멸시키고 노예화하려는것보다 더한 반인륜적, 반인권적범죄가 어디에 있겠는가.

미국은 1919년 일제가 우리 인민의 3.1봉기를 야수적으로 탄압한데 대해 미국무성은 《조선문제는 순진한 일본의 내정문제인만큼 우리 필리핀에서 폭동이 일어난 경우와 동일하다. 폭동진압을 위하여 일본정부가 위한 태도에 관하여 여러가지 아름답지 못한 보도가 있으나 이는 극히 의식적이다. 국부정은 입수한 정보에 의한다면 일본이 특히 가혹하고 잔인한 조치를 취하였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비호하였다.

일제가 조선강점기간 조선사람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고 강제노동을 강요하였으며 여성들을 일본군성노예로 만든 반인륜적대범죄의 배후는 미국이 있다.

2) 8. 15해방후 남조선에서의 무자비학살인민행

미국은 남조선에 비법적으로 잠입한 후 저들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는 애국자들과 인민들을 무자비적으로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1946년 10월 대구를 비롯한 남조선 각지에서 민주주의적권리와 군정체제를 요구하여 일어난 10월 인민항쟁때 미국이 피외폭압무력을 내몰아 야수적으로 탄압함으로써 2만 5 000여명이 죽고 수천명이 행방불명되었으며 수만명이 부상당하였다.

1948년 4월 제주도에서 미군정을 반대하는 4. 3봉기가 일어나자 미국은 《제주도당이 필요하지 제주도민은 필요지 않다.》, 《전설에 휘발유를 붓고 모두 죽여도 좋다.》고 떠벌이면서 피외군사장대들을 동원하여 투쟁장사자들을 흉으로 쓰어죽이고 칼로 찢어죽이고 목매달아죽이고 생매장해죽이는 등으로 주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7만여명을 무참히 학살하였다.

1948년 5월 10일 하루동안에 미국은 저들이 조작한 《단독선언도》를 반대한다고 하여 416명

이나 살해하고 858명을 부상시켰다. 1948년 10월에는 려수군인폭동을 야수적으로 진압하면서 전라남도 려수와 순천에서 2 400여명을 학살하고 4 500여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1949년 12월부터 1950년 1월까지의 기간에 지리산, 태백산, 오대산 등 5개 지구에 대한 토벌공세를 벌이면서 4만여명을 학살하고 수만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미제의 군화발에 짓밟힌 남조선은 거대한 인간도살장이었다.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에 기어든 이후 1949년 7월까지 괴조탄압에 더욱 광분하면서 몇개월기간에 그 이전 4년간 학살한 수보다 더 많은 10만 9 000여명의 무고한 인민들을 학살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이 기간에 철퇴로 죽은 사람은 11만 8 600여명에 달한다.

남조선은 강점한 미제야수들은 썩어빠진 인종주의사상과 페르페릭에 물젖음대로 젖어 살인과 강간을 패락으로 삼았다.

1947년 호남선철차안에서 24명의 양기들이 어린이까지 인은 3명의 조선선생들을 붙들어 집단적으로 문간한 다음 마구 때려 질식사시킨 조선부녀용사사건은 이미 세상에 잘 알려졌었다.

피외당국의 공식통계에 의하더라도 1945년 남조선에 강점한 이후 미제침략군이 지금까지 저지른 살인, 강도, 강간을 비롯한 각종 범죄는 무려 23만건이상에 달하고있다. 이로 하여 수십만명의 남조선인민들이 명멸해온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

3) 조선전쟁시기 집단적대 학살만행

미제침략자들은 지난 조선전쟁시기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수 없는 가장 잔인하고 악독한 방법으로 우리 인민을 무참히 살육하였다.

공식통계에 의하더라도 미제는 조선전쟁시기 공화국북반부에서 123만여명, 남조선에서 124만여명을 학살하였다.

미제야수들의 학살만행은 특히 우리의 전락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집중적으로 감행되었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신천대학살만행은 그 대표적시례이다. 1950년 10월 신천행에 기어든 미제살인귀들은 50일동안에 군민구의 25%에 달하는 무려 3만 5 380여명의 애국자들과 무고한 인민들을 학살하였다. 그가운데는 어린이와 노인, 여성들만 하여도 1만 6 200여명이나 된다.

군당방공소에서 900여명을 휘발유를 뿌려 불태워죽이고 원양리 창고에서는 어머니와 아이들이 함께 있는것은 너무도 행복하다, 당장 매어 어머니들이 어린이를 찾아 오가 타 죽고 어린이는 어머니를 애가 간이 말라 죽게 하라고 하면서 배고고 우는 어린이들에게 물대신 휘발유를 먹이고 어머니들의 머리우에 불풍차를 뿌리기도 모자라 수류탄을 마구 던져 400명의 어머니와 102명의 어린이를 포함한 910명의 무고한 인민들을 학살하였다.

미제는 로동당원이라고 하여 눈알을 뽑고 심장을 도려내고 사지를 찢어죽였고 열성농민이라고 하여 머리에 못을 박고 톱으로 커서 죽였으며 농민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여 꼬리를 빼앗아 방바닥에 내동댕이치되 줄로 코를 껴어 깔고다니다가 폭행을 내리쳐 죽였다.

우리의 여성핵심들을 체포해서는 짐승도 낫을 붙일 만행을 감행하였을뿐 아니라 은뎀을 찢아찢겨 거리에 끌어내고 《빨갱이계집》, 《녀맹원장》, 《인민대의 처》라고 하면서 야수적으로 고문하고 용육하였으며 옛 가슴과 국부를 도려내어 죽이고도 성치지 않아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집단적으로 생매장하고 저수지에 처형하여 죽였다.

1950년 10월 은물광안에 기어든 미제총알이들은 2 000명여의 광산로동자들과 그 가족들을 10명씩 되 줄로 배를 묶어 수직갱에 집어넣어 학살하였으며 빨갱이새끼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보려고 하면서 임신한 여성의 배를 갈라 죽이고 300여명의 애국자들을 작두로 토막을 내어 학살하였다.

미제침략군은 불과 한달 남짓한 기간에 평양에서 1만 5 000여명, 안악에서 1만 9 072명, 은백에서 1만 3 000여명, 해주에서 6 000여명, 벽성에서 5 998명, 송화에서

5 545명, 은천에서 5 131명, 태탄에서 3 429명, 사리원에서 950여명, 안주에서 5 000여명, 봉천에서 3 040명, 연안에서 2 450명, 재령에서 1 400여명, 장연에서 1 199명, 락연에서 802명, 평 산에서 5 290여명, 토산에서 1 385명, 봉산에서 1 293명, 송림에서 1 000여명, 강서에서 1 561명, 남포에서 1 511명, 개천에서 1 342명, 순천에서 1 200여명, 박천에서 1 400여명, 정주에서 800여명, 철원에서 1 560여명, 원산에서 630여명, 함주에서 648명, 단천에서 532명, 선천에서 1 400여명의 무고한 인민들을 무참히 학살하였다.

미제야수들은 무고한 인민들을 귀를 꺾어 깔고다니다가 죽였고 눈알을 뽑고 가죽을 벗겨서 죽였으며 일술을 도려내고 혀를 잘라 죽였으며 사지를 찢고 각을 떠서 죽였는가 하면 머리예 대못을 박거나 톱으로 토막을 내어 죽였으며 불태워죽이고 땅으로 깔아뭉개 죽였다.

국제민주여성평맹조사단은 1951년 공화국북반부지역에서 미제가 저지른 만행들을 조사하면서 《미국이 름시로 점령하였던 지역들에서 감행한 대중적학살과 고문들은 히틀러나 치스틀이 름시로 감행하였던 유럽에서 감행한 만행보다 더 악랄하다.》고 폭로하였다.

남조선에서도 미제는 무고한 인민들을 집단적으로 학살하였다. 미제야수들은 패주하면서 인천에서 5 000여명, 수원에서 1 146명, 평택에서 600여명, 안성에서 500여명, 부여에서 2 000여명, 조치원에서 158명, 대진에서 8 644명, 청주에서 2 000여명, 전주에서 4 000여명, 군산에서 400여명, 공주에서 600여명, 안양에서 400여명, 충주에서 2 060여명 등의 애국자들과 무고한 주민들을 학살하였다.

악명높은 로근리민간인대학살만행은 미제의 야수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산 증거이다. 1950년 7월 미기갑사단 7기갑련대의 살인악당들은 총정복도 영등군 로근리부근에서 민간인들을 철길 위로 강제로 집결시키고 비행기들을 무전으로 호출하여 무차별폭격과 기총사격을 가하여 학살하였으며 이를 피해 다리밑에 들어간 사람들을 기판으로 싸죽였다.

미제야수들은 경성남동 거창과 함양, 산강군 등지에서 수천명의 무고한 인민들을 질질서켜놓고 짓밟아 어린이들로부터 70대의 로인에 이르기까지 몰살시키고는 만행을 감추기 위해 휘발유를 뿌리고 불태워버렸다.

서울에서는 1950년 9월부터 1951년 2월 패주할 때까지의 기간에만도 무려 14만 7 000여명의 애국자들과 인민들을 살해하였다.

미제침략군들은 전쟁의 와중에서도 수목을 채취기 위해 우리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마구 학살하였다.

1950년 9월 당시 《유엔군》사령관이었던 맥아더는 인천에 상륙하면서 배고고 우는 어린이들에게 물대신 휘발유를 먹이고 어머니들의 머리우에 불풍차를 뿌리기도 모자라 수류탄을 마구 던져 400명의 어머니와 102명의 어린이를 포함한 910명의 무고한 인민들을 학살하였다.

미제는 로동당원이라고 하여 눈알을 뽑고 심장을 도려내고 사지를 찢어죽였고 열성농민이라고 하여 머리에 못을 박고 톱으로 커서 죽였으며 농민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여 꼬리를 빼앗아 방바닥에 내동댕이치되 줄로 코를 껴어 깔고다니다가 폭행을 내리쳐 죽였다.

우리의 여성핵심들을 체포해서는 짐승도 낫을 붙일 만행을 감행하였을뿐 아니라 은뎀을 찢아찢겨 거리에 끌어내고 《빨갱이계집》, 《녀맹원장》, 《인민대의 처》라고 하면서 야수적으로 고문하고 용육하였으며 옛 가슴과 국부를 도려내어 죽이고도 성치지 않아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집단적으로 생매장하고 저수지에 처형하여 죽였다.

1950년 12월 미제침략군들은 서울의 어느 한 집에 뛰어들어 산후 2주일밖에 안되는 산모에게 갓난 아이를 빼앗아 방바닥에 내동댕이치고 그 자리에서 문간하였으며 또 다른 집에 가서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그 딸을 용육하는 추악한 만행을 감행하였다.

참으로 미제가 지난 조선전쟁기간 우리 인민들에 저지른 학살만행은 고급등서의 력사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잔인하고 야만적인것이었다.

4) 전후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남조선에서의 치졸리는 만행

3. 조선민족의 생존권에 대한 악랄한 유린말살

미제는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짓밟고 수많은 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하였을뿐 아니라 삶의 터전과 생존권을 마구 파괴약탈함으로써 생존권마저 약탈하게 유린말살하고있다.

미제야수들은 조선전쟁기간 《북조선의 78개 도시를 지도우에서 완전히 없애버렸다.》, 《북조선에 쏟아

미제는 전후 남조선에 계속 틀고 앉아 주민행세를 하면서 수많은 무고한 인민들을 대상으로 귀족같은 만행을 감행하였다. 나몰라ະະ 소년을 《쟁》이라고 쓰아아우고 송유관부근에서 놓고있던 3살 난 어린이를 《휘발유도적》이라고 총으로 쏘죽인 1957년의 군산 소녀총격사건과 인천송유관어린이인사사건, 구두담이 고아소년을 도적으로 몰아 칼로 란도칠하고 벤처로 발뚎파 머리칼을 잡아뜯는 후 전신에 끝날질을 하여 나무상자에 처넣고 못을 쳐 직승기로 실어 내던진 1958년의 부령소녀성폭행사건, 여인을 강제로 병영에 끌고가 벌가벗기고 집단용육한 후 가축체적으로 마구 때리고 은뎀을 찢어죽음을 하여 거리에 내쫓은 1959년의 정부녀인민행기살사건, 나무하는 농부를 《노루》라고 쏘죽인 1962년의 파주나무꾼사살사건, 《M-16》소총 성능시험을 한다고 하면서 여러명의 주민들을 파죽이소로 쏘죽이고 조준사격하여 학살한 1981년의 총기판사사건 등은 그 일부분이 지나지 않는다.

1992년 미제침략군들이 동두천기지촌의 녀청법원을 용육한 뒤 그의 머리를 범으로 내리쳐 실신케 하고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녀성의 자궁에 씨를 틀어넣고 흥분해 우산대를 꽂아넣는 귀족같은 만행을 저지른 윤금이사해사건, 2002년 걸가던 나이 어린 녀청학생들을 감감자의 무한케도로 깔아뭉개어 처참하게 학살한 신호순, 심미선학살사건은 페르페릭과 인간승우사상으로 길어먹진 양기들만이 할수 있는 반인륜적범죄이다.

미제살인귀들에게 있어 조선인민들은 애당초 사람이 아니라 썩어오리, 들쥐와 같은 짐승에 지나지 않았고 야수적인 혐기심과 변태적인 수욕을 충족시켜주는 한낱 쾌락대상으로밖에 되지 않았다.

미제는 1945년 8월 제2차 세계대전종결의 시각이 다가오자 조선반도의 남쪽 절반이라도 타고앉을 흥심밑에 본게성을 조작하여 남조선에 비법적으로 잠정하였다.

그리고 1948년 《5. 10만선》가맹으로 리승만피외정권을 조작하여 민족분열을 영구화하는 길에 들어섰다.

조선침략전쟁의 불을 질렀다가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한 미국은 침략 야망을 변함없이 추구하면서 정적전후부터 유엔을 내세워 정전협정에 규정한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정치회담을 파탄시켰으며 1954년에 조선문제해결의 협상의 방법으로서 조정을 위한 제네바 외부상회의도 의적으로 결렬시켰다.

미국은 《우리가 조선에 와서 몇십 만명의 희생을 냈는데 어떻게 조선을 그저 내놓겠는가. 조선에서 나가야 해.》고 공공연히 제쳐대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수시키는데 대한 정전협정조항도 파괴해버리고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제를 강화하는것으로 도전해나섰다.

1960년대에 들어와 남조선에서 조국통일기운이 급격히 높아져 미국은 피외도당을 내몰아 각계층의 통일운동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으며 수많은 모략사수들을 조작하여 통일애국인사들과 단체들을 가혹하게 처형, 탄압하는 등으로 통일의 문에 빗장을 단단히 질러놓았다.

1970년대에 북과 남사이에 조국통일3대원칙을 천명된 7. 4공통성명이 발표되고 통일의 열망이 온 강도에 차넘치는데 당황한 미국은 《유엔중시가입안》이니, 《외차승인문》이니 하는것들을 내세우고 《두개 조선》 조작책동에 매달렸으며 1990년대에 북남교위급회담이 열리고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자 광민적인 반공화국핵성동으로 그에 찬물을 끼얹고 북남합의를 짓밟아 버렸다.

2000년대에 와서 북남사이에 두차례의 수뇌상봉이 진행되고 력사적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이 채택되었을 때에 그에 수표한 남조선의 전 《대통령》들에게 《기분나쁜 일》, 《그냥 두어서는 안될 심각한 사태》라고 하면서 로골적으로 협박하고 모욕하던 끝에 퇴임하기 바쁘게

게의 나팔란을 뺐고있다. 평양에만도 지리산, 소이산, 세군산을 포함한 각종 폭탄 5만 2 380계를 투하함으로써 1km당 1 000개의 폭탄을 퍼붓는 기록을 세웠다.

미제가 전쟁 3년간 기간 평양에 총 1 400여회에 걸쳐 42만 8 000여개의 폭탄을 쏟아부어 전쟁이 끝날무렵에는 한 전체의 생성한 건물조차 없는 완전한 폐허로 되었다.

미제는 전쟁전기공 공화국북반부 상공에 공군비행대는 80만회, 해병대와 해군비행대는 25만회이상이나 출격시켜 태평양전쟁때 일사건, 녀인을 강제로 병영에 끌고가 벌가벗기고 집단용육한 후 가축체적으로 마구 때리고 은뎀을 찢어죽음을 하여 거리에 내쫓은 1959년의 정부녀인민행기살사건, 나무하는 농부를 《노루》라고 쏘죽인 1962년의 파주나무꾼사살사건, 《M-16》소총 성능시험을 한다고 하면서 여러명의 주민들을 파죽이소로 쏘죽이고 조준사격하여 학살한 1981년의 총기판사사건 등은 그 일부분이 지나지 않는다.

1992년 미제침략군들이 동두천기지촌의 녀청법원을 용육한 뒤 그의 머리를 범으로 내리쳐 실신케 하고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녀성의 자궁에 씨를 틀어넣고 흥분해 우산대를 꽂아넣는 귀족같은 만행을 저지른 윤금이사해사건, 2002년 걸가던 나이 어린 녀청학생들을 감감자의 무한케도로 깔아뭉개어 처참하게 학살한 신호순, 심미선학살사건은 페르페릭과 인간승우사상으로 길어먹진 양기들만이 할수 있는 반인륜적범죄이다.

4. 조선민족에게 분열의 비극을 들씌우고있는 반인륜적만행

미국은 1945년 8월 제2차 세계대전종결의 시각이 다가오자 조선반도의 남쪽 절반이라도 타고앉을 흥심밑에 본게성을 조작하여 남조선에 비법적으로 잠정하였다.

그리고 1948년 《5. 10만선》가맹으로 리승만피외정권을 조작하여 민족분열을 영구화하는 길에 들어섰다.

조선침략전쟁의 불을 질렀다가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한 미국은 침략 야망을 변함없이 추구하면서 정적전후부터 유엔을 내세워 정전협정에 규정한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정치회담을 파탄시켰으며 1954년에 조선문제해결의 협상의 방법으로서 조정을 위한 제네바 외부상회의도 의적으로 결렬시켰다.

미국은 《우리가 조선에 와서 몇십 만명의 희생을 냈는데 어떻게 조선을 그저 내놓겠는가. 조선에서 나가야 해.》고 공공연히 제쳐대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수시키는데 대한 정전협정조항도 파괴해버리고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제를 강화하는것으로 도전해나섰다.

1960년대에 들어와 남조선에서 조국통일기운이 급격히 높아져 미국은 피외도당을 내몰아 각계층의 통일운동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으며 수많은 모략사수들을 조작하여 통일애국인사들과 단체들을 가혹하게 처형, 탄압하는 등으로 통일의 문에 빗장을 단단히 질러놓았다.

1970년대에 북과 남사이에 조국통일3대원칙을 천명된 7. 4공통성명이 발표되고 통일의 열망이 온 강도에 차넘치는데 당황한 미국은 《유엔중시가입안》이니, 《외차승인문》이니 하는것들을 내세우고 《두개 조선》 조작책동에 매달렸으며 1990년대에 북남교위급회담이 열리고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자 광민적인 반공화국핵성동으로 그에 찬물을 끼얹고 북남합의를 짓밟아 버렸다.

2000년대에 와서 북남사이에 두차례의 수뇌상봉이 진행되고 력사적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이 채택되었을 때에 그에 수표한 남조선의 전 《대통령》들에게 《기분나쁜 일》, 《그냥 두어서는 안될 심각한 사태》라고 하면서 로골적으로 협박하고 모욕하던 끝에 퇴임하기 바쁘게

미제침략군의 수습년간에 걸치는 남조선강점으로 인한 환경파괴 역시 심각하다. 한강과 람진강, 금오강을 비롯하여 미군기지까지 도시리쓰이는 주변의 강하천들은 폐유와 화학물질, 중금속 등을 마구 내버려 먹는물로 사용할수 없는 형편에 있으며 조선서해도 심히 오염되어 양식과 물고기잡이를 할수 없게 만들었다.

미국은 그 무슨 《남침위협》을 떠들면서 비무장지대에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을 가진 고염제를 대량 살포하고 곳곳에 있는 미군기지과 주변지역에도 마구 파묻어 영구죽음의 지대》로 만들어놓고있다.

경상북도 칠곡에 있는 미군기지만 놓고보아도 1 500만명의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갈수 있는 50여t의 고염제를 퍼는데도 파묻어 락동강물을 먹는물로 리용하는 수백만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이 엄중히 위협당하고있다.

남조선강점 미군기지의 오염된 환경을 초보적으로 정화하는데만도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야 할것이라고 한다.

남조선인물들은 《이남주둔 미군의 력사는 곧 범죄의 력사이다. 《그야말로 온 강토가 미군의 오염물질메딕지로 되었다.》고 개탄하고있다.

미국의 명토파괴와 지대황폐화는 우리 민족의 생존권을 엄중히 위협하는 야만행위이다.

극악한 침미주구 리명박악당을 부추겨 각방으로 모해하여 죽음에 몰아넣었다. 김대중, 로무현《대통령》들의 비극적죽음은 조선의 통일을 달가워하지 않는 미국의 배후조종에 의한 사실상 정치테로음에 의한것으로서 조선민족의 통일년월에 대한 극악한 도전이고 역행이다.

미국은 그에 그치지 않고 침미줄개들을 내세워 북남선인들을 모조리 짓밟고 그 리명을 방해하고 북남관계를 대걸로 되돌아가게 하였다.

미국은 올해에 우리의 중동적이고 성의있는 노력에 의해 북남교위급접촉이 진행되고 북남관계개선을속임이 시작되자 방대한 침략무력을 끌어내며 《키 리졸브》, 《독수리》 등 각종 북침전쟁연습을 광판적으로 벌려후부터 유엔을 내세워 정전협정에 규정된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정치회담을 파탄시켰으며 1954년에 조선문제해결의 협상의 방법으로서 조정을 위한 제네바 외부상회의도 의적으로 결렬시켰다.

미국은 《우리가 조선에 와서 몇십 만명의 희생을 냈는데 어떻게 조선을 그저 내놓겠는가. 조선에서 나가야 해.》고 공공연히 제쳐대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수시키는데 대한 정전협정조항도 파괴해버리고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제를 강화하는것으로 도전해나섰다.

1960년대에 들어와 남조선에서 조국통일기운이 급격히 높아져 미국은 피외도당을 내몰아 각계층의 통일운동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으며 수많은 모략사수들을 조작하여 통일애국인사들과 단체들을 가혹하게 처형, 탄압하는 등으로 통일의 문에 빗장을 단단히 질러놓았다.

1970년대에 북과 남사이에 조국통일3대원칙을 천명된 7. 4공통성명이 발표되고 통일의 열망이 온 강도에 차넘치는데 당황한 미국은 《유엔중시가입안》이니, 《외차승인문》이니 하는것들을 내세우고 《두개 조선》 조작책동에 매달렸으며 1990년대에 북남교위급회담이 열리고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자 광민적인 반공화국핵성동으로 그에 찬물을 끼얹고 북남합의를 짓밟아 버렸다.

2000년대에 와서 북남사이에 두차례의 수뇌상봉이 진행되고 력사적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이 채택되었을 때에 그에 수표한 남조선의 전 《대통령》들에게 《기분나쁜 일》, 《그냥 두어서는 안될 심각한 사태》라고 하면서 로골적으로 협박하고 모욕하던 끝에 퇴임하기 바쁘게

미국의 침략책동과 반인륜적만행에 의해 우리 민족이 입은 인적, 물적피해는 무려 114조USS이상이라고 있다.

조선민족을 여러 세대가 지나도록 생리멸시켜놓고 서로 싸우게 하고 핵제약을 들의우려는 미국이야말로 국제제판에 회부되어야 할 특등인권법죄자이다.

참으로 지난 백수십년동안 미국이 조선민족에게 기친 반인륜적악과 반인권적만행을 련거지하진 끝이 없다.

이 세상에 미국과 같은 야만인이라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그 누구의 《인권》이니 뭐니 하는 미국이야말로 얼마나 파렴치한 날강도이고 흉악무도한 침략자인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미국이 조선민족에게 저지른 전대미문의 반인륜적범죄에는 시효란 있을수 없다. 우리 민족은 백년속적인 철천지원수 미국과 반드시 최후의 결산을 하고야말것이다.

미국은 우리 민족이 제 미국을 불구대천의